

# 한국 영화에 재현된 중국인 형상의 역사적 고찰\*

김 중 수  
(경희대학교)

## 1. 서론

이 글은 한국 영화에 묘사된 중국인의 형상을 검토하여 중국인을 바라보는 한국인의 관점이 변화하는 맥락을 탐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우선 근대 초 중국인을 바라보는 한국인의 대중적 시선을 당시 신문기사를 통해 점검한다. 또한 일제 식민지 시기와 해방 후 한국의 대중영화에 등장하는 중국인 상像을 확인하여 한국 대중이 이해하고 있는 중국인 이미지를 귀납해보도록 한다. 20세기 초중반 한국 대중서사에 등장하고 있는 중국인의 재현 양상을 바탕으로 2000년대 한국영화에 나오는 중국인의 모습을 고찰함으로써 동시대 한국인이 이해하고 있는 중국(인)의 시각을 확인하고 그 시각이 내포하고 있는 한국인의 심리를 분석하도록 한다.

주지하다시피 중국은 정치적으로는 북한과 동맹관계에 있다. 북한과 한국 간의 긴장관계에서 현재 완충적 역할을 담당하기도 하지만, 사회주의를 표방 하였던 지난 60여 년간 북한과 밀월관계를 유지하였던 중국이기 때문에 정치적으로 중국(정부)을 경계하는 시선이 한국 대중들 사이에 여전히 남아있다.

---

\* 이 글은 2011년 10월 15일 중국 장춘에 개최된 제12회 중국한국학국제학술대회에서 「한국 영화에 재현된 중국인 형상」이란 제목으로 발표했던 글을 수정·보완한 것이다.

1980년대 개혁개방의 실용노선을 추구하기 시작한 후 고도의 경제성장을 이룩하고 있는 중국이지만 정치적 상층세력이 “공산당”이라는 점은 한국 대중에게 거부감을 품게 하는 이유인 것이다. 뿐만 아니라 역사시대 이후로 여러 차례 중국의 침략을 당했다는 과거 역사적 경험이 대국 중국에 대한 호의적인 감정을 가로막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해방 후 남북이 분단되고 중국에 사회주의 정권이 집권을 하면서 “중공”과 한국의 교류는 엄격하게 금지되어 왔으나<sup>1)</sup> 1992년 한중수교 이후 한국과 중국은 긴밀한 경제적 협력관계가 형성되었고, 문화적 교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특히 인적 교류가 매우 빈번해서 1980년대 후반 친척방문을 목적으로 입국하기 시작했던 중국인이 1992년 한중 수교 이후 건설현장, 식당, 가정집에서 일하거나 산업연수생 등의 자격으로 한국에 입국하며 그 수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였다. 한국 법무부 통계에 따르면 2007년 8월 한국 체류 외국인이 100만 명을 넘어섰고 그 중 44%가 중국인으로 집계되었다.<sup>2)</sup> 한국의 노동시장에서 중국인의 비중은 확대되는 추세인 것이다.

그러나 한중 수교 후 한국과 중국의 경제적, 정치적, 문화적 교류가 급증하면서 양국 관계가 긴밀해지고 있지만, 한국 국민이 가지고 있는 중국(인)에 대한 감정은 사안에 따라 양가적인 면모를 드러내고 있다. 예를 들어 경제개발의 후발국가인 중국을 경제발전의 주요 상대국으로 여기면서도 “Made in China”에 대한 한국인의 경멸적 인식은 개선되지 않고 있다. 또한 한국 노동시장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는 중국인을 천시하는 태도도 여전하다.

이 글은 40여 년간 정치적으로 긴장관계를 유지했던 이웃국가였으나 현재는 인적 교류와 경제적 협력관계가 긴밀한 한국과 중국의 관계 속에서 중국인을 바라보는 한국 대중의 시선은 어떠할까라는 물음에서 출발했다. 중국인을 바라보는 한국 대중의 시선을 파악하기 위해 이 글에서 주목하는 연구대상은 대중들이 향유하는 대중문화텍스트이다. TV드라마, 영화, 소설, 대중가요 등 대중

1) 양필승과 이정희는 이 시기를 한국과 중국간의 교류가 거의 없던 “쇠퇴기”(1950-1989)로 규정하고 있다. - 양필승·이정희, 『차이나타운 없는 나라-한국화교 경제의 어제와 오늘』, 삼성경제연구소, 2004. 참조.

2) 「법무부 국정브리핑 자료- 국내 체류 외국인 100만명 돌파」, 『동아일보』, 2007. 8. 23.

문화텍스트는 수용자인 대중의 인식과 취향, 정서를 반영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근대 이후 한국과 중국의 다방면에 걸친 빈번한 교류 가운데에서도 그동안 한국 대중이 향유하는 대중문화텍스트에 등장하는 중국(인)에 관한 연구가 많지 않다. 최근에 한국 근대소설에 나타난 중국인 형상을 다룬 연구<sup>3)</sup>가 발표된 정도이다. 이 연구들은 선행연구로서 의의가 있으나 그 내용이 식민지 시기에 한정되었고 특히 식민지 만주 지역을 배경으로 다룬 소설에 한정되었다. 현대 한국인이 이해하고 있는 중국인 이미지를 탐구하는 데에는 좀더 대중적이고 역사적 변화과정을 조망해 볼 수 있는 연구대상으로 접근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근대 대중들이 향유하는 대표적인 대중서사물이라고 할 영화에서 재현된 중국인의 모습을 역사적으로 고찰해보고자 한다. 현재는 한국사회의 일원이자 한국의 경제 성장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는 중국인을 바라보는 한국인들의 시각이 대중영화에 반영되어 있으며 또한 최근 영화에 나타나는 중국인의 재현 양상 속에는 21세기 한중관계를 바라보는 한국인의 심리를 파악하는 데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 사료된다.

이 글에서는 우선 근대 초 한국에 거주하게 된 중국인을 바라보는 한국 대중의 시선을 검토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한다. 중국인에 관한 한국인의 최초 인식을 당시 신문의 기사를 근거로 살펴보는 것은 중국인에 대한 관점의 기원을 탐색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여겨지기 때문이다. 이를 바탕으로 식민지 시기 대중이 향유한 영화에 등장하는 중국인 형상을 분석하고, 해방 후 중국과의 교류가 전면 단절되었던 시기(1950-1989)에 한국인들이 향유한 대중영화에 자주 등장한 중국인의 재현 양상을 점검하여 중국인 이미지를 귀납해보도록 한다. 특히 한국과 중국간에 공식적인 교류가 없던 시기였음에도 불구하고 대중서사에서 중국인을 소환하여 상투적 이미지를 형성하게 된 이유를 검토할 것이다. 위와 같은 중국인 이미지의 전사前史를 바탕으로 2000

3) 한국 근대소설에 나타난 중국인 상을 다룬 연구는 다음과 같은 것이 있다. 유인순, 「근대한국소설에 투영된 중국, 중국인」, 『한중인문과학연구』8집, 2002.; 유인순, 「현대한국소설에 투영된 중국, 중국인」, 『한중인문과학연구』12집, 2004 ; 김성욱, 「한국근대소설에 나타난 타자이미지연구- 중국인 형상을 중심으로」, 한양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8.

년 이후 한국영화에 등장하는 중국인 재현 양상을 비교하여 현재적 관점에서 한국인이 이해하고 있는 중국인의 이미지를 파악하고 그 이미지가 내포하고 있는 한국인의 심리를 분석해보도록 한다.

## 2. 기피와 혐오, 경계의 대상으로서의 중국인

근대 초기 한국인이 인식한 중국은 일본 제국주의에 직면한 조선과 유사한 처지에 놓인 나라로서 “문명 낙오자인 중국, 또는 개혁모델로서의 중국, 동양 3국 연대의 한 축으로서의 중국” 등으로 유형화<sup>4)</sup>되었다. 식민지 시기에도 중국은 반식민지 상황에 놓인 동병상련의 이웃나라로 인식되었고 당시 조선의 신문은 열강의 중국침략에 공분하고 중국의 반외세투쟁, 국민혁명운동과 혁명지도자 등에 깊은 관심을 가졌다. 이것은 조선 사람들의 독립 지원세력과 방법을 모색하던 상황에서 중국의 반외세, 반봉건 투쟁을 가까이에서 보고 배울 수 있는 모델이 되었기 때문이었다.<sup>5)</sup> 그런데 당시 중국 내부의 정치상황과 중국인들의 대일투쟁을 보고하는 신문 기사가 일본 제국주의에 대항하는 조선과 중국의 유사한 처지를 반영하여 중국(인)에 관한 우호적인 태도로 일관하였던 것과는 다르게 조선에서 거주하는 중국인 관련 사건 기사는 중국인에 관한 기피와 혐오의 정서가 짙게 배어있다. 항일과 반식민주의 투쟁이라는 정치적 관점과는 상이하게 조선인의 일상사에서 체험하고 이해되는 중국인의 이미지는 매우 부정적이었던 것이다.

근대 초기 중국인을 바라보는 조선인의 기피와 혐오의 감정은 근대 초 개화파의 중국인관에서 시작되었다. 개화파 지식인들은 근대화의 과정에서 주변 열강들에게 힘없이 패배하는 중국을 바라보며 과거의 조선과 중국 관계를 청산할 것을 주장하였다. 『독립신문』을 근거지로 활약한 개화파 지식인들은 “淸國人을 朝鮮人보다 못한 사람으로 취급했고, 또 그렇게 취급하도록 선전

4) 백영서, 「대한제국기 한국언론의 중국인식」, 『역사학보』153, 1997. 3.

5) 이재령, 「남경국민정부시기 한국언론의 중국인식- 동아일보(1929-1935) 기사를 중심으로」, 『중국학논총』15, 2003. 287쪽.

했다.” 특히 淸日戰爭 후 淸과의 事大關係가 중식되지마자 朝野를 막론하고 과거의 굴욕적 관계를 보상받고자 하는 심리가 만연하였다. 이에 反淸 독립의지를 표명해 온 개화파 지식인들은 중국인 멸시관을 앞장서 유포하였던 것이다.<sup>6)</sup> 이와 함께 1920년대 초반 조선의 민간신문들에서 중국인의 악행을 보도하는 기사가 빈번히 등장한다.

당시 일간신문의 사건기사에 소개되는 중국인은 어린 소녀를 유괴하여 인신매매를 하거나<sup>7)</sup> 아이를 감금하여 구타참살한 사람<sup>8)</sup>으로 거론되고, 채소밭에 독약을 뿌려 조선인 닭이 몰살되고 어린 아이가 중태에 빠지게 한 사람<sup>9)</sup>으로 보도되었다. 또한 황해도 모래강변에 갓 태어난 아이 시체를 유기한 중국인의 악습<sup>10)</sup>이 신문지상에 거론되기도 하였다. 신문지상에 보도된 이 같은 중국인 관련 사건기사는 중국인이 조선인에게 악독한 행패를 부리는 인종이며 그들 때문에 사회적 불안이 고조되고 있음을 고발하고 있었다. 그래서 중국인을 겪어보지 못한 다수의 조선인들도 신문에 유포되는 중국인 관련 사건 기사를 통해 중국인을 기피하고 혐오하게 되었다.

“남의어린딸을 훔치여다가 급수와가튼 중국인에게파느니 팔니면 밭을  
 줄나메느니하는소문이돌님으로 그부모되는자는 더욱히 엇지할줄 몰나가  
 숨을태인다더라”(「祖母와 孫女の 居處不明」, 『동아일보』, 1922. 2.  
 11.)

신문 기사를 통해 유포되는 중국인 혐오분위기가 당시 조선사회 전역에서 팽배되었음을 쉽게 추정해 볼 수 있는 것은 위 인용한 기사에서 보듯이 기사들이 중국인을 표현하는 수식어구에서 찾아 볼 수 있다. 그런데 전족의 풍습

6) 전우용, 「한국 근대의 화교문제」, 『한국사학보』15, 2003, 397-398쪽

7) 「十二歲少女를 六十圓에 賣却한者」, 『동아일보』, 1924. 7. 20.; 「中國人の 少女 賣매」, 『동아일보』, 1924. 8. 18.; 「祖母와 孫女の 居處不明」, 『동아일보』, 1922. 2. 11.

8) 「伍兒를 毆打慘殺」, 『동아일보』, 1922. 3. 29.

9) 「榮田에 毒藥뿌려」, 『동아일보』, 1923. 6. 9.

10) 「中國人の 惡習」, 『동아일보』, 1923. 3. 27.

을 혐오하고 중국인을 금수와 같다고 여기는 중국인 기피 현상은 일제 식민지 시기 조선 경제에 침투한 중국인의 상업적 영향력 확대와 관련이 있었다. 상업적 수완이 뛰어났던 중국인들이 시장 곳곳에서 조선인의 경제 영역을 잠식해오면서 위기감을 갖게 된 조선사회가 중국인들에게 느꼈던 경계심의 표현이 중국인 사건기사에서 노골적으로 드러난 것이다.

1882년 체결된 “朝淸商民水陸貿易章程” 이후 조선 거주 중국인 수는 일제 식민지시기동안 계속 증가한다. 중국인들은 잡화상, 음식점을 운영하거나 야채재배와 건설현장에 대거 진출하면서 일제 식민지 조선인과 경쟁을 벌이게 되었다. 1920년대 동아일보와 조선일보에 중국인 노동력의 급증으로 조선인 노동자의 실업률이 증가한다는 기사<sup>11)</sup>가 자주 등장하였고, 경성 요식업의 현황분석 기사에서 “중국료리집이 일년의 합계로 일백팔십만원가량”의 매출을 기록하고 있다고 보고하며 “가공할 중국인세력”이라고 머릿기사를 뽑은 것<sup>12)</sup>, 인천의 고급 야채수요시장을 중국인들이 장악하고 있다는 기사<sup>13)</sup>, 중국상인의 폭리 고발 기사<sup>14)</sup>는 조선 경제권에 미친 중국인의 활동을 비판적으로 다루고 있다. 당시 조선인들에게 중국인은 조선사회에서 경제적인 영향력을 확대하고 있는 경계의 대상이었음을 알 수 있다.

사실 근대초기부터 식민지 시기 동안 조선 거주 중국인에 대한 조선인의 시선이 곱지 않은 이유는 근대화 과정에서 중국인이 조선에 거주하게 되는 저간의 사정에서 비롯되었다. 1882년 임오군란 발발 후 같은 해 8월 조선과 청국 사이에 체결된 “朝淸商民水陸貿易章程”의 4조에 양국 상민이 개항장에서 통상할 수 있고 토지의 영조 및 가옥의 임차, 건축, 소유할 수 있도록 하여 청국인들이 조선으로 이동하는 전기가 마련되었다.<sup>15)</sup> 그런데 이 조약 이후 중국정부가 조선내 중국인에 대한 정치적, 경제적 원조를 지속하며 중국인의 횡포사례가 큰 사회문제<sup>16)</sup>로 대두되었다. 또한 중국인들의 조선 정착과

11) 박은영, 『한국화교의 종족성』, 한국연구원, 1986, 79쪽.

12) 「可恐할 中國人 勢力」, 『동아일보』, 1922. 12. 19.

13) 「仁川野菜現況」, 『동아일보』, 1924. 4. 20.

14) 「自由鍾」, 『동아일보』, 1926. 2. 15.

15) 박은영, 『한국화교의 종족성』, 한국연구원, 1986, 30쪽

16) 1884년 5월 중화회관의 부지매입과 관련하여 당시 전임 병조판서 이경복의 아들

정에서 중국인들은 중국정부의 도움으로 농업중심의 조선사회에서 상업의 중요부문을 독점하게 되자 조선 내 중국인에 대한 반감은 시간이 갈수록 커져갔던 것이다.

조선에 거주하는 중국인에 대한 조선인의 반감의 정서를 반영하여 일제 식민지 시기 제작된 영화<sup>17)</sup>에서 중국인은 조선인을 납치하는 유괴단 두목이나 경제력으로 조선인을 곤경에 빠뜨리는 탐욕스러운 부자로 등장한다. 일제 식민지 시기 조선의 대표적인 영화감독 나운규의 <사랑을 찾아서: 원제 두만강을 건너서>(1928)에서 어머니 병환을 치료하기 위해 애쓰는 가난한 주인공 정희에게 돈을 빌려주고 그녀의 몸을 사는 사람이 요릿집을 운영하는 중국인 명기운이다. 빌린 돈을 갚을 길이 없게 된 정희가 애인 총희와 만주로 도망을 하게 되자 명기운은 만주까지 정희를 쫓아가게 되는데 명기운의 추격을 피하기 위해 정희가 의탁하게 되는 인물이 또한 만주도박단의 중국인 두목이었다.

경제적인 고난을 해결하려고 도움을 청하지만 경제적인 도움을 빌미로 여인의 육체를 빼앗거나 탐욕스러운 모습으로 형상화되는 중국인의 모습은 류장안 감독의 <支那街의 秘密>(1928)에서도 재현된다. 1927년 발표된 김기진의 『黑眞珠』를 원작으로 제작된 <지나가의 비밀>에서 남자 주인공 김용구의 애인 송미례를 납치하여 자신의 정부를 삼은 자가 중국인 유괴단 두목 마초해였다. 조선인 인신매매단의 두목으로서 남녀노소를 가리지 않고 조선인을 유괴하는 마초해의 소굴을 찾아들어가 사랑하는 연인 송미례를 구출하고 중국인 두목 마초해를 처치하는 김용구의 화려한 액션이 당시 극장에서서

---

이법진이 토지를 중국인들에게 팔지 않는다고 납치 구타당한 사건이 발생하였다. 이법진은 정삼품의 현직관리였으나 중국정부의 비호를 받은 중국인들에게 피해를 입을 수밖에 없었다. 또한 1888년 5월 평안북도에서 중국관헌의 허기를 받은 중국인들이 연광 착굴을 위해 조선인 묘지를 채굴하자 조선인 후손들이 분개하여 항의하였는데 중국인이 폭력을 행사하여 2명이 사망하고 여러명이 부상을 당하는 사건도 발생하였다. - 박은영, 앞의 책, 63쪽. 이처럼 중국인이 조선에 유입 정착하던 단계에서부터 조선인에게 가한 폭력과 조선인을 무시하는 횡포 때문에 조선인들의 중국인 기피 현상이 시작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 17) 주지하다시피 일제 식민지시기 제작된 영화의 실제 필름이 남아 있지 않기 때문에 일제 식민지 영화에 관한 논의는 김종욱이 편저한 『실록 한국영화총서(상)(하)』, 국학자료원 2002.를 기본 자료로 하여 서술하였다.

화제가 되었다는 점<sup>18)</sup>을 고려한다면, 재현된 중국인 등장인물의 행태에 반영된 조선인의 감정을 확인할 수 있다.

일제 식민지 시기 영화에 재현된 중국인에 대한 조선인의 기피와 혐오의 감정은 현실에서 중국인 배척 사건으로 폭발되기도 하였다. 1927년과 1931년 두 차례에 걸쳐 전국 대도시에서 발생하였던 중국인 배척 사건은 범죄문제, 민족성 문제<sup>19)</sup>, 노동력 유입 문제<sup>20)</sup> 등을 원인으로 촉발된 사건이지만, 무엇보다 일제 식민지 체제가 고착되는 1920년대 후반부터 1930년대 초반의 경제적 불황으로 노동시장이 급격히 위축된 조선인들의 불안 심리와 상권을 잠식하는 중국상인들에 대한 조선인의 견제 심리 때문이었다. 여기에 재만 한인사회에서 중국인들에게 멸시당하는 조선인에 관한 기사가 자주 보도<sup>21)</sup>되면서 한국인과 중국인의 충돌이 빈번하였던 것이다.

조선에 거주하던 중국인을 바라보는 조선인들은 중국인에 대한 횡포의 기억과 경제적 경쟁관계 및 상업부문에서 확대되는 중국인들의 영향력 등을 이유로 중국인을 기피하고 혐오하며 경계의 대상으로 여기고 있었던 것이다. 이 같은 심리적 피해의식 때문에 앞서 살핀 신문기사에 나오듯이 중국인은 문화적, 인종적 편견과 공포의 대상으로 제시되었다. 한국 근대 단편소설의

- 18) “남 주인공 김용구가 중국으로 건너가 애인을 찾아 중국인 소굴을 찾아가 벌이는 활극이 인상적인 작품” - “支那街의 秘密” 단성사에서 상영, 『중외일보』, 1928. 5. 24.
- 19) 1927년과 1931년에 있었던 일제 강점기 조선에 거주하던 중국인 배척 사건의 원인과 중국인에 대한 조선인의 부정적 이미지는 일본의 이간책 때문이라는 주장도 제기되었다. 이에 관하여서는 양소진·손옥매, 『조선화교사』, 1991, 중국화교출판공사; 박영석, 「만보산사건에 관한 연구: 일제대륙침략정책의 일환으로」, 아세아문화사, 1985. 참고.
- 20) 일제 강점기 한국인의 중국인 배척은 경제침투 세력에 대한 반감이 폭발한 것이 큰 요인이라는 주장은 김희용, 「일제강점기 한국인의 화교배척」, 한국교원대석사학위논문, 2009. 참고.
- 21) 1927년 12월 길림성 쌍양현 부근 한국동포 9가구가 중국인들에게 강제 추방당했다는 기사(「雙陽에서 쫓긴 同胞 長春路頭에서 彷徨」, 『동아일보』, 1927. 12. 3.)를 정점으로 1927년 하반기 국내 신문에는 재만동포의 고난소식이 자주 보도되었다. 그리고 1931년 “만보산사건”의 국내 속보가 연일 기사화되면 조선내 중국인 배척 사건이 폭발하게 되었던 것이다.

대표작으로 일컬어지는 김동인의 <감자>(1925)에 묘사된 왕서방이 탐욕스럽고 비정한 중국인으로 등장하는 것도 당시 이 같은 조선인의 중국인 상에 기대고 있었던 것이다.

### 3. 이념의 적과 악당으로서의 중국인

일제 식민지배에서 벗어난 1945년 이후 한반도에서는 북한과 한국이 각각 다른 체제의 정부를 수립하였다. 중국도 대만의 중화민국과 본토의 중화인민공화국이 1949년에 각각 탄생하게 된다. 1950년 한국전쟁이 발발하자 중국 본토의 중화인민공화국은 북한의 지원군으로 전쟁에 참여하게 되었고 이때부터 한국에게 “중공”은 적성국으로 각인된다. 1950년부터 1980년대 중국이 실용노선을 추구하기까지 냉전시기 한국인의 중국인식은 냉전과 반공논리에 입각하여 중화인민공화국을 공산국가 “중공”으로 호명하게 되었던 것이다

한국전쟁의 전장을 소재로 하여 투철한 군인상을 재현하였던 1960년대 한국의 전쟁영화에서 냉전적이고 반공적인 관점에 입각하여 묘사되는 “중공군”이 등장한다. 식민지 시기 신문매체에서 유포되었던 기괴와 혐오의 대상으로서의 중국인, 영화와 소설에서 재현된 탐욕스럽고 비정한 중국인의 이미지는 냉전시기 반공논리에 따른 “적”으로 변주되었던 것이다. 특히 한국전쟁 당시 인천상륙작전을 통해 북진하였던 한국군이 한반도의 통일을 눈 앞에 두고 중공군의 개입으로 후퇴할 수밖에 없었다는 한국전쟁사의 기록은 한국대중들에게 중공군에 대한 적개심을 더욱 강화하였다.

이만희 감독의 1963년 작 <돌아오지 않는 해병>은 한국전쟁 때 인천상륙작전에 참가한 해병이 북진통일을 눈앞에 두었다가 중공군에 포위 전멸하게 된 이야기이다. 이 영화는 한국전쟁의 상황을 남과 북의 갈등으로 그리지 않고 남한의 해병대가 인해전술로 참전한 중공군을 상대하는 서사구조를 뼈대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여타 한국전쟁 영화들과 구별된다. 북한군이 아니라 중공군을 주적으로 삼은 이 영화가 재현해내는 중공군의 모습은 동물적인 군 집으로 재현된다. 북쪽 겨울의 별거벗은 산기슭에서 산사태처럼 밀려내려오

는 중공군의 공세장면이 주인공들의 곁에 질린 얼굴과 겹치면서 전쟁의 공포가 시각화된다.

성격화된 개인으로 등장하지 않은 채 공포스러운 군집으로만 표현되는 중공군은 피아구분이 분명한 전쟁에서 적일 뿐이다. 전쟁에 참전한 중국인의 수효를 묻는 중대장 간의 대화에서 “중국의 인구조사를 다시 해야겠소. 중국에서 생산되는 강냉이 숫자만큼 되나봐 구더기 끊듯하니까”라는 대사가 보여주듯이 중공군은 혐오스럽고 불가항력적인 ‘적’으로 형상화된다. 여기에 날렵하고 용맹한 한국 해병대원들과 대비되게 잘 맞지 않는 군복과 병거지 군모를 쓰고 흙범벅이 된 군화를 신고 둔해보이는 발걸음으로 죽은 한국군이 차고 있는 시계를 훔쳐가는 중공군의 모습은 미개하며 탐욕스러운 적으로 재현되었다.

냉전시기 전쟁영화와는 전혀 다른 성격이지만 중국인을 탐욕스럽게 묘사하고 회화화하는 대중영화가 만주웨스턴<sup>22)</sup>이었다. 일제 식민지 시기만주벌판을 배경삼아서 독립군의 활약상을 과장된 민족주의와 감상주의로 포장하여 결말을 맺던 만주웨스턴에는 독립군의 활동을 방해하는 중국인들이 자주 등장하였다. 이만희 감독의 1971년 작 <쇠사슬을 끊어라><sup>23)</sup>에서 주인공들이 쟁탈을 벌이는 보물 티벳불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바로 황포마적 두목이었다. 조선의 독립군 세력과 그들을 제거하려는 일본 헌병 사이에서 경제적 이득을 챙기려는 황포마적은 이익에만 눈 먼 중국인으로 조선 독립군의 목숨과 재산을 위협하는 존재로 그려진다.

22) 만주웨스턴은 1960-70년대 액션을 이용한 대륙물을 통칭하는 용어이다. 오락물로 치부되어 당시 비평계에서는 물론이고 신문기사에서조차 거의 다루지 않았으나 이 영화들은 재개봉판을 중심으로 상영되어 정확한 통계수치가 잡히지 않지만 오랜 기간 유통되면서 많은 관객이 관람하였다. 신상옥, 이만희, 임권택 같은 스타 감독들이 메가폰을 잡고 신영균, 장동휘, 허장강, 남궁원 등 스타배우들이 출연하였다는 점은 이 영화들이 당시 대중들에게 크게 인기가 있었음을 방증한다. 이만희 감독의 <쇠사슬을 끊어라>(1971), 임권택의 <두만강아 잘 있거라>(1961), 정창화의 <정복자>(1963), 강범구의 <소만국경>(1964), 신상옥의 <무숙자>(1968) 등이 있다. 만주웨스턴에 관해서는 박유희, 「만주웨스턴 연구」, 『대중서사연구』 20, 2008. 9-12쪽 참조.

23) 2008년 여름 한국형 웨스턴을 표방한 김지운 감독의 <좋은 놈, 나쁜 놈, 이상한 놈>은 칸영화제에서 호평을 받으며 흥행에도 성공하였는데 김지운 감독은 이 영화를 제작할 때 이만희의 <쇠사슬을 끊어라>가 모티브가 되었다고 밝혔다.

시대적인 상황이 만주웨스턴과 비슷한 1970년대 무협물인 이두용 감독의 태권시리즈에 등장하는 중국인도 배신과 권모술수로 개인의 영달만을 좇다 복수를 당하는 악한이다. 하얼빈 시내를 배경으로 하는 〈용호대련〉(이두용, 1974)에는 조선독립자금 금괴 100개를 운송하던 주인을 살해하고 재물을 독차지하려던 중국인 왕대련 뿐만 아니라 주인공을 쫓아다니며 주인공이 제압한 적을 수습하는 중국인 염쟁이가 희극적으로 등장한다. 싸움판에서 패배한 자를 수습하면서 돈벌이를 하는 중국인 염쟁이의 회화화된 모습과 개인적인 영달만 추구하는 왕대련의 악독한 행적은 돈벌이에 혈안인 중국인의 이미지를 반영하고 있는 것이다.

1960-70년대 한국 대중들이 즐겨보았던 전쟁영화, 만주웨스턴, 무협영화에서 등장하는 중국인은 예외없이 악의 근원이자 탐욕스러운 이미지로 재현되고 있었다. 대중오락영화가 대개 선악의 이분법적 구도를 기반으로 하여 주인공의 용맹과 정의감을 전면에 내세움으로써 선의 승리를 도덕적으로 고양한다는 점을 고려할 때, 주인공의 상대역으로 등장하는 중국인들은 극단적인 악으로 제시됨으로써 주인공의 선한 이미지를 더욱 강화하였다. 당시 한국 영화에서 중국인은 개성적인 캐릭터를 획득하지 못한 동물적 군집의 형상으로 구상되어 불가항력적인 적으로 묘사되거나 주인공을 고난에 빠뜨리는 탐욕스러운 인물로 등장하며 회화화되기도 한다.

세계사적인 냉전체제가 진행되었던 1960-70년대 한국에서 중국은 ‘중공’으로 호명되며 현재적인 관계가 전면 단절되었던 상태였다. 반공이데올로기가 지배하고 있던 당시 대중들이 즐겨보던 대중영화들은 한국전쟁의 전장을 배경으로, 또는 독립운동의 대륙적 표상인 만주를 배경으로 촬영하면서 적으로서의 중국인을 소환하였던 것이다. 그러나 여기에서도 근대초기부터 형성되었던 중국인의 탐욕스러운 이미지는 반복되며 극단적인 악의 형상으로 재현되는 중국인의 패배와 죽음을 통해 한국인의 생존과 승리는 정당성을 획득하였다.

#### 4. 연민과 포용, 파트너로서의 중국인

2000년 이후 중국인이 성격화된 주인공으로 등장하는 한국영화가 발표되었다. 과거 영화에서 서사의 부수적인 인물이거나 악한으로 묘사되던 중국인이 아니라 순정의 이미지를 가진 여인, 또는 삶의 강한 의지를 가진 밝은 성격의 중국여성이 한국 멜로영화의 주인공으로 등장하는 것이다. 전통적으로 한국인이 선호하는 장르인 멜로영화의 주인공은 대개 한국 사회의 현재적 관심사를 반영한 갈등요소를 내포하기 마련이다. 갈등의 해소과정에서 여주인공에게 감정이입을 하여 정서적 카타르시스를 체험하게 만드는 멜로영화에 중국여성이 주인공으로 등장한다는 점에서 중국인에 대한 한국인의 인식태도가 과거와는 확연히 변화하였음을 알 수 있다.

2000년대 접어들어 중국인 배우가 여주인공으로 등장한 최초의 한국영화가 <파이란>이다. <파이란>은 위장결혼한 중국인 아내의 죽음을 확인하려 가는 삼류조폭이 중국인 아내의 순정을 발견하면서 자신의 존재감을 찾아가는 이야기이다. 이 영화는 바다를 건너 인천항에 도착한 중국인들이 입국심사를 받는 장면으로 시작한다. 입국 심사장에서 심사관의 눈치를 살피는 여주인공의 난처한 표정은 한국에 첫 발을 내딛는 중국인의 불안한 심리와 그들을 대하는 한국의 의심스러운 속내를 함축하고 있다는 점에서 상징적이다. 여기에는 한국에 온 중국여인을 바라보는 한국인의 이중적 시선, 모멸과 연민의 시선이 담겨있기 때문이다.

갓 중국에서 입국한 고아이자 폐병 환자인 주인공 파이란(장백지 분)은 한국인들에게 모멸의 대상이다. 한국에 체류하게 해달라는 파이란의 간청을 듣는 직업소개소의 상담원이 동해안 소도시의 유흥업소로 취직시키려고 한다든가, 세탁소에서 일하는 파이란의 신분을 확인하러 온 마을 이장이 그녀에게 의심스러운 질문과 시선을 던지는 것, 병이 심해져 빛 상환을 유예해달라는 파이란에게 무좀약을 바르며 박대하는 직업소개소 소장의 태도는 돈을 벌기 위해 한국에 입국한 중국인 여성을 대하는 한국인들의 무시와 모멸의 감정을 형상화하고 있다. 하지만 영화에서 갈 곳 없는 병든 여주인공이 악착같이 한국에 정착하려는 모습은 관객에게 연민의 정서를 불러일으킨다.

고아에다가 폐병으로 이국에서 죽어가는 여주인공이라는 통속적 인물설정이 동정과 연민을 유발한다. 삼류강패 강재(최민식 분)에게 자기를 아내로 삼아준 것을 진심으로 고마워하며 서툰 한글로 사랑의 편지를 쓰는 모습이나 유흥업소 화장실, 세탁소에 딸린 쪽방 같은 좁고 허름한 공간에서 참았던 눈물을 터뜨리는 장면 등은 관객들에게 연민의 감정을 증폭시킨다. 의지처없는 파이란에 대한 연민의 정서는 남자주인공 강재가 편지를 읽으며 오열하는 장면에서 최고조에 달한다. 삼류강패가 자신을 성찰하고 새로운 출발을 마련할 수 있는 계기는 바로 청순가련한 중국인 처녀의 순수성때문이었다. 한국인에게 중국인 여성은 세련되지 않지만 순수한 이미지로 이해되는데 그녀는 마치 한국의 경제개발시기 시골처녀를 상기시킨다. 머리를 질끈 묶은 채 화려한 거리와 대비되는 낡고 초라한 옷차림에 큰 가방을 들고 인천거리를 배회하는 파이란의 모습은 1970년대 경제개발시기 서울역에 도착한 농촌처녀의 이미지와 유사하다. 중국에서 온 순수한 대상에 대해 가지는 이같은 이중적 시선은 중국을 바라보는 한국인의 현재적 관점이기도 하다. 〈파이란〉에는 한국보다 경제 개발이 덜 된 나라라는 인식, 중국보다 잘 사는 한국이 중국을 무시하기도 하고 동정할 수도 있다는 우월의식이 내포되어 있는 것이다.

여주인공을 1970년대 한국의 농촌처녀와 같은 이미지로 재현함으로써 중국인에 대한 모멸과 연민의 이중적 감정을 드러내고 있는 것이 〈파이란〉이라면, 2009년 작 〈호우시절〉은 중국을 바라보는 또다른 한국인의 관점이 내재되어 있다. 과거에 서로 사랑했으나 제대로 표현해보지도 못한 채 헤어졌던 중국인 여주인공과 한국인 남주인공이 사랑의 두번째 기회를 얻게 된다는 〈호우시절〉은 상호간의 문화적 차이를 인정하고 상처를 감싸줌으로써 희망적인 미래를 제시하고 있다.

〈호우시절〉은 2008년 발생한 대지진의 폐허가 여전히 남아있는 2009년 쓰촨을 배경으로 하고 있다. 쓰촨의 명소인 ‘두보초당’에서 외국인을 상대로 관광가이드를 하고 있는 여주인공 메이(고원원 분)가 우연히 이곳에 찾아온 옛사랑 동하(정우성 분)의 사랑을 수락하지 못하는 이유는 쓰촨 대지진으로 사망한 남편때문이다. 이 사실을 안 동하가 그녀를 이해하고 기다린 후 재회하게 되는 서사는 따뜻하고 밝은 분위기로 일관한다.

이러한 분위기는 여주인공 메이와 남자주인공 동하가 서로의 문화를 이해해 가는 과정에서 벌어지는 웃음의 에피소드에서 발생한다. 돼지내장탕면인 “페이창편”을 맛보는 동하의 난처한 표정이라든가, 김치냄새에 대해 늘어놓는 메이의 불평처럼 중국인 여자와 한국인 남자는 음식문화를 통해 상호문화의 차이를 확인하고 이해한다. 미국유학 시절에 만났던 메이와 동하는 중국에서 재회하여서도 영어로 대화한다. 상대방의 언어를 구사하지 못하지만 의사소통이 가능한 이 둘의 관계는 기본적으로 대등하다. 한국어와 중국어에 관심을 가지는 두 주인공은 점차 서로에 대한 애정이 깊어져가는 것을 확인하게 되는 것이다.

〈호우시절〉은 한국인이 가장 좋아하는 중국시인인 ‘두보’의 유적지를 배경으로 전개된다는 점에서 한국인의 우호적인 관심을 받고 있다. 두보초당과 활기찬 쓰촨의 밤거리, 판더곰, 대나무숲 등 중국의 아름다운 풍경이 자연스럽게 소개되면서 중국과 중국인의 생활이 무질서하거나 저개발 상황일 것이라는 편견을 재고하게 한다. 남자주인공 동하가 지진의 폐허를 복구하는 일에 동원된 한국의 중장비를 수출하는 기업에 속한 인물로 등장한다는 점에서도 중국이 처한 곤란을 포용하겠다는 우호적인 관점을 유지한다. 이 영화가 재현하고 있는 중국인의 모습은 한국이 중국이 처한 현재적 고통을 나누고 미래의 동반자적 관계를 유지하고 싶다는 기대심리를 반영한다. 1992년 한중수교 이후 한국의 현재 최대무역거래국인 중국을 일방적인 관계가 아니라 상호의존적인 관계로 인식하면서 파트너로서의 우호적 감정을 가지고 있음을 드러내고 있는 것이다.

## 5. 결론

이 글은 근대초기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중국(인)을 바라보는 한국인의 대중적 시선을 확인하기 위해 한국 영화에 재현되고 있는 중국인의 형상을 고찰하였다. 근대초기 조선의 언론은 일본의 침략을 경계하고자 같은 처지에 있는 중국의 사례를 참고하며 중국에 우호적인 태도를 보이기도 하였으나 『독

립신문』을 중심으로 한 개화파 지식인들의 중국인 멸시관은 1920년대 조선의 민간신문 기사에 자주 등장하는 중국인 사건 보도로 이어졌다.

중국인에 대한 기피와 혐오의 정서는 일제 식민지 시기 제작된 영화에도 반영되어 나운규의 <사랑을 찾아서>(1928)나 류장안의 <지나가의 비밀>(1928)같은 영화에서 중국인은 조선인을 납치하는 유괴단 두목이나 경제력으로 조선인을 곤경에 빠뜨리는 탐욕스러운 부자로 등장한다. 조선에 거주하던 중국인을 바라보는 조선인들은 중국인에 대한 횡포의 기억과 노동시장에서의 경쟁관계 및 상업부문에서 확대되는 중국인들의 영향력 등의 이유로 중국인을 기피하고 혐오하며 경계의 대상으로 여기고 있었던 것이다.

1950년 한국전쟁 이후 세계사적인 냉전체제가 진행되었던 1960-70년대 한국에서 중국은 ‘중공’으로 호명되며 현재적인 관계가 전면 단절되었던 상태였다. 반공이데올로기가 지배하고 있던 당시 대중들이 즐겨보던 대중영화들은 한국전쟁의 전장을 배경으로, 또는 독립운동의 대륙적 표상인 만주를 배경으로 촬영하면서 적으로서의 중국인을 소환하였던 것이다. 그러나 여기에서도 근대초기부터 형성되었던 중국인의 탐욕스러운 이미지는 반복되었으며 극단적인 악의 형상으로 재현되는 중국인의 패배와 죽음을 통해 한국인의 생존과 승리는 정당성을 획득하였다.

한국과 중국이 공식적인 수교가 이루어진 1992년 이후 특히 2000년대 들어 한국 멜로영화에는 중국인이 주인공으로 등장하여 한국인과 사랑을 나누다. <파이란>의 백련을 통해 재현되는 중국인을 바라보는 한국인의 관점은 순수한 대상에 대해 가지는 이중적 시선을 특징으로 한다. <파이란>에는 한국보다 경제 개발이 덜 된 나라라는 인식, 중국보다 잘 사는 한국이 중국을 무시하기도 하고 동정할 수도 있다는 우월의식이 내포되어 있는 것이다. 한편 <호우시절>에서 재현하고 있는 중국인의 모습은 한국이 중국이 처한 현재적 고통을 나누고 미래의 동반자적 관계를 유지하고 싶다는 기대심리를 반영한다. 1992년 한중수교 이후 한국의 현재 최대무역거래국인 중국을 일방적인 관계가 아니라 상호의존적인 관계로 인식하면서 파트너로서의 우호적 감정을 가지고 있음을 드러내고 있는 것이다.

---

주제어

한국영화, 중국인 형상, 두려움의 대상, 이념의 적, 우호적인 상대

❖ 참 고 문 헌

- 김성욱, 「한국근대소설에 나타난 타자이미지연구- 중국인 형상을 중심으로」, 한양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8.
- 김중욱, 『실록 한국영화총서(상)(하)』, 국학자료원, 2002.
- 김희용, 「일제강점기 한국인의 화교배척」, 한국교원대석사학위논문, 2009,22쪽
- 박영석, 「만보산사건에 관한 연구: 일제대륙침략정책의 일환으로」, 아세아문화사, 1985.
- 박유희, 「만주웨스턴 연구」, 『대중서사연구』 20, 2008.9-12쪽 참조.
- 박은영, 『한국화교의 종족성』, 한국연구원, 1986
- 백영서, 「대한제국기 한국언론의 중국인식」. 『역사학보』153. 1997. 3
- 양소전·손옥매, 『조선화교사』, 1991, 중국화교출판공사
- 양필승·이정희, 『차이나타운 없는 나라-한국화교 경제의 어제와 오늘』, 삼성경제연구소, 2004.
- 유인순, 「근대한국소설에 투영된 중국, 중국인」, 『한중인문과학연구』8집, 2002.
- 유인순, 「현대한국소설에 투영된 중국, 중국인」, 『한중인문과학연구』12집, 2004
- 이재령, 「남경국민정부시기 한국언론의 중국인식 -동아일보(1929-1935) 기사를 중심으로」, 『중국학논총』15, 2003.

❖ ABSTRACT

## A Study on Chinese Characters Represented in Korean Films from under Japanese Colonial Period to the 2000s

Kim, Jongsoo

This article aims that Chinese characters represented in Korean films have been explored for historical consideration of Korean's viewpoint on Chinese from early modern to the present day.

During Japanese colonial period, Chinese had been hateful and feared by most of Korean because Korean had been acted high-handedly by Chinese in early modern time and had covertly regarded Chinese as threatening competitors in economical part of the colony, referred to the Chinese characters represented in the films, *For the Lover*(1928) and *Secret of Chinese Street*(1928).

Chinese had been called as enemy forces in Korean movies, such as *Marines are Gone*(1963), *Dragon competed with tiger*(1974) made with Korean battle field setting and Manchuria setting developed a Korean independence movement, after Korean War in the 1960-70s maintained the cold war system in the World.

According to analyzing Chinese characters depicted in *Failan*(2001), *A Good Rain Knows*(2010), Korean public have a friendly attitude with contemporary Chinese as China has been the great trade partner of Korea with interdependent relationship after 1992, the year of Korea have established diplomatic ties with China.

---

**Keywords**

Korean Fims, Chinese Characters, Chinese Feared by Korean, Enemy Forces,  
Friendly Partner

논문접수일: 2012. 05. 10

심사완료일: 2012. 06. 08

게재확정일: 2012. 06. 11